

**HEUKSUKDONG FIRST**  
METHODIST CHURCH



# 새성전 건축을 위한 기도문



기독교대한감리회  
**흑석동제일교회**

담임목사 김 한 권 Rev. Dr. Hankwon Kim

[www.hsd2kl2d.com](http://www.hsd2kl2d.com)

정면



후면





##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학2:1-9)

김 한 권 담임목사

바벨론에 의해 포로로 끌려온 유다 백성들을 바사왕 고레스가 바벨론을 정복하고 난 후 본국으로 돌아가도록 선처를 베풀고, 거기다 유다백성들이 자기들의 나라로 돌아가 성전을 재건해도 좋다는 허락까지 합니다. BC538년 1차 포로귀환이 시작되는 데, 그 때 약 5만명 정도가 스룹바벨과 함께 1,500km의 거리를 걸어서 유대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2년 후인 BC536년에 성전건축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런데 성전건축을 시작하자마자 사마리아 사람들의 모함과 극심한 방해로 중단되고 맙니다. 그러기를 벌써 16년이라는 시간이 흘러갔습니다. 이제는 모두가 포기하고 성전 건축에 대해서 아무도 말하고 있지 않았을 때, 하나님이 그 말을 꺼내십니다.

[학1:1] “**다리오 왕 제이년 여섯째 달 곧 그 달 초하루에 여호와와 말씀이 선지자 학개로 말미암아**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임하니라.”

(다리오왕은 바벨론 제국을 무너뜨린 바사제국의 고레스, 캄비세스에 이은 3번 째 왕입니다. 그의 통치 시기는 BC522년부터 시작되는데, 통치 2년이 되는 해 BC520년에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다는 겁니다. BC536년에 시작된 성전건축이 중단된 지 16년과 꼭 들어맞는 해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내용은 이렇습니다.

[학1:2-5] 2 만군의 여호와와 이같이 말하여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와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 4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 때에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나** / 5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16년이 지났는데 사람들은 아직도 건축을 재개할 시기가 아니라고 말하기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전은 짓다 말아 더 황폐해지고 삭막하기 그지없는

데... 너희는 오히려 판벽한 집에 거주하고 있는 게 옳은 거냐? 하나님이 16년 동안 기다리고 기다리다 말을 먼저 꺼내시는 것입니다. 성전은 짓다 말아 황폐해졌는데, 너희들의 집은 판벽한(세푸님/지붕이 덮인 상태, 또는 집이 사치품으로 장식된 상태) 상태로 있는 것이 과연 옳은 신앙인 것이냐?

아무도 말하지 않고 16년 동안 중단된 성전건축에 대해서 하나님이 기다리시다가 이렇게 말을 먼저 꺼내시는 것을 우리는 주목해 봐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인 줄 알면서도 미뤄두고 있는 것들은 없습니까? 미뤄두고 미뤄두다 유다백성들처럼 지금은 시기가 아니라고 자신들의 행위를 합리화하는 데에 까지 이르고 있는 신앙의 자리나, 봉사의 자리는 없습니까?

때가 되면 하지요. 아직은 여의치 않으니 형편이 좀 나아지면 하지요...

하나님이 바라고 계시는 마음을 한 번 더 살펴보실까요? 1:8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솔로몬은 레바논의 백향목을 수입해 성전을 지었지만, 지금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결코 비싼 재목, 비싼 자재를 들여 내 집을 지으라고 하지 않으십니다. 지금이라도 산에 올라가 나무를 가져다가도 내 집을 짓기 시작한다면 그것으로 내가 기뻐하고 영광을 얻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성전의 규모나 재질이냐 외형이 아니라, 성전을 지을 마음이 너희에게 있다면 산에서 나무를 가져다가도 짓는 열심만 있다면 나는 기뻐하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와 우리들에게 정말



바라고 계신 그 마음을 이해하고 계십니까? 올해는 우리 교회가 성전건축을 시작할 원년이었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것들이 결정되어지고 또 변화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잊지 마십시오. 꼭 기억하십시오. 레바논의 백향목이어야만 한다 하나님은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일에 대해, 하나님의 집에 대해 너희들이 간직하고 있는 중심, 마음이 진실이면 산에서 해 온 나무로 짓는 성전이어도 나는 기쁘다고 나는 영광을 얻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전건축 중단으로 황폐해진 성전을 보면서도 아픔이 없고, 관심이 없던 유다 백성들, 9절 하반기 말씀처럼, 각각 자기의 집을 짓기 위하여는 빨랐던 유다 백성들, 지난 16년을 하나님의 것보다 내 것이 더 우선시 된 삶을 먼저 살았어도 형편은 어떻게 되었나요?



[학1:10-11] 그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하늘은 이슬을 그쳤고 땅은 산물을 그쳤으며** / 내가 이 땅과 산과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땅의 모든 소산과 사람과 가축과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일에 한재를 들게 하였느니라**

[학1:6]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흠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샅을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것을 먼저 생각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 먼저 일해 보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쳤던 하늘의 이슬이 내리는 축복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땅의 수확물이 늘어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수고하는 모든 일마다 한재가 드는 것이 아니라, 아름다운 열매들이 맺히는 복된 삶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학1:14-15] 여호와께서 스룹바벨과 제사장 여호수아와 남은 모든 백성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매 그들이 와서.. 하나님의 전 공사를 하였으니 15 그 때는 **다리오 왕 제이년 여섯째 달 이십사일** 이었더라



하나님이 16년 동안 중단된 성전건축을 하라고 말씀을 하신 때가, 1:1절에 보면, 다리오왕 2년 여섯째 달 초 하루였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16년 동안 중단되었던 성전건축을 시작한 시점이 1:14 다리오왕 2년 여섯째 달, 24일.

하나님의 말씀을 처음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한 것이 불과 23일 만에 16년 동안 중단되었던 성전 건축이 다시 재개되었다는 것입니다. 한 쪽에서는 아직 시기가 아니라고 하는 사람, 반대하는 사람, 아직도 자기 것을 위해 바쁜 사람들이 있었지만, 16년의 게으름을, 16년의 불순종을 끊어버리는 사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느 편에 서 있습니까? 아직도 시기를 말하고, 형편과 처지를 말하고, 내 게으름을 합리화하고 불순종하는 자리에 서있습니까? 아니면 불순종의 고리를 끊어버리고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의 대열에 서있습니까? 저는 우리의 지난 세월에도 칭찬받는 믿음의 자리였다면 앞으로 시작되는 모든 신앙의 발걸음 또한 과거의 영광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고 약속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희망을 품고 꿈을 꾸며 하나님의 드림팀 대열에 합류하여 역사를 새롭게 써내려가는

주인공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 2:4을 보십시오.

**“스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와와 말 아니라 **이 땅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와 말이니라” (Be strong O Zerubbabel ! Be strong O Joshua!, Be strong O all you ppl of the Land and Work! for I am with you!!)

강해지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유는 내가 너와 함께 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저는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교회와 성도들에게도 여전히 똑같이 말씀해 주신다고 믿습니다. 성전건축을 시작할 우리에게도 똑같이 강해지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기 때문에 강해지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해주십니다. 그리고 계속 함께 해주실 것입니다.

2:5을 보십시오.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과 나의 영이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에 머물러 있**

**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애굽에서 나올 때부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과 하나님의 영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머물러 있었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 하십니다.

지금은 다리오왕 2년 BC520년, 애굽에서 나올 때는 BC1446년 926년이 지났는데, 역사적으로는 수많은 일들이 있었을 1,000년 가까운 그 세월동안 하나님은 너희와 함께 있었다고, 내 영이, 내 말이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었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 마음은 연초에서 연말사이에도 변해버리는데도,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사랑은 시간이 지나면서 식어지기도 했지만, 1000년이라는 시간이 흘러갔어도,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의 영은 하

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머물러 함께 하고 있었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천 년이 지나도 아니 만 년이 지나도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언제나 유효하며 언제나 변치 않으며 하나님의 영은 늘 우리와 함께 머물러 계시는 줄 믿습니다. 학개 시대에 이 말씀을 하신 하나님, 지금 2500여년이 지난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이 약속은 변함없는 진리인 줄로 믿습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사랑하는 여러분 새해에는 어떤 조건, 어떤 환경, 어떤 실패, 어떤 절망, 어떤 시련, 어떤 고통, 어떤 아픔, 어떤 괴로움에서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약속은 변하지 않습니다. 스스로 굳세게 하여라.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학2:6-9]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  
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요 / 7  
또한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모  
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리니 내가 이 성  
전에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와 말이니라 / 8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와 말  
이니라 / 9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와 말이  
니라 내가 이 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  
의 여호와와 말이니라

조금 있으면 하나님은 이 성전에 하나  
님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조금 있으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심  
을 믿고 그 일을 시작하는 믿음의 사람  
들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성전의 영광  
이 충만하게 될 것을 보여 주신다고 약  
속하고 있습니다.

저는 믿습니다. 9절 말씀이 우리에게 이  
루어지게 될 것을 믿습니다.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저는 믿습니다. 이 말씀은 오늘 우리 교  
회에게도 똑같이 주시는 축복의 말씀임  
을 믿습니다. 성전의 외형이나, 성전의  
화려함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는 것  
이 아니라 우리에게 변치 않는 약속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를 지켜주  
시는 하나님의 영이 우리 성도들과 우  
리 교회에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더 크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그 믿음으로 끝까지 걸어가십시오.  
어떤 일이 우리를 가로막아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포기하거나 절망하지 마십시오.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하나님이 약  
속해 주셨습니다.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과 나의 영이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에  
머물러 있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  
어다.”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 약속이 현실이 되고, 그 약속이 축복  
이 되는 날을 함께 볼 수 있는 믿음의  
식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  
합니다.



# 기도

## 거룩한 부름심 앞에서...

“여호와께서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의 마음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마음과 남은 모든 백성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매 그들이 와서 만군의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의 전 공사를 하였으니” (학1:14)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오늘 하나님의 거룩하신 부르심 앞에 모두 서 있습니다.

지난 80여년의 세월을 주님의 몸된 교회와 동행하셨던 하나님, 그 지난 세월 모든 순간순간이 중요하지 않은 때가 한 순간도 없었습니다. 특별히 지금 세 번째 성전건축에 우리를 부르신 이 거룩한 자리는 그 어느 때보다도 더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를 서있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이 거룩한 사명을 감당할 수 없기에 우리는 겸손히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구합니다.

자비로우신 주여!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사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며 응답할 수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는 이 땅에서 그

사명을 감당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머물러 떠나지 않게 될 것을 믿습니다.

암울했던 일제 강점기 시절, 1936년 11월 첫 주일에 하나님은 우리 교회의 첫 발자국을 내딛게 하였고, 200평의 땅을 일본 사람, 기노시다 사가해로부터 기증받아 40평의 단층 목조건물로 첫 번째 주님의 교회를 세우게 하셨습니다.

그 후 1970년 12월 6일 건평 189평 붉은 벽돌2층, 목사관 26평을 신축하게 하였고, 1977년 12월 건평 116평 3층 교육관을 신축하게 하였고 예배당 2층 20평을 증축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14년이 지나 1991년 5월 19일 기존 교회건물의 지붕개량, 단열재, 방음벽, 냉난방시설 내부 인테리어를 하게 하셔서 성전을 리모델링하도록 인도하셨습니다.

이제 28년이 지나 2019년에 하나님은 우리 교회가 세워진 이 지역을 뉴타운으로 개발하도록 시정책을 바꿔주셔서 우리에게 새성전을 지을 대지 700평을 허락하셨고, 지하 5층 지상6층 연건평 4300평의 성전을 신축하도록 인도하셨습니다.



돌아보면, 민족의 내일이 암울했던 일제 강점기에 교회를 세워주셨고, 민족 상잔의 비극인 6.25을 겪으면서도 하나님은 뜻이 계셔서 세우신 우리교회를 지켜 주셨음을 깨닫고 그 은혜에 감사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가난한 시절도 있었고, 힘겨운 상황도 있었지만 하나님은 오늘 여기까지 이곳에 세우신 주님의 몸 된 교회를 눈동자와 같이 지켜 주셨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여기까지 에베에셀 동행하시고 인도하여 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더불어 이제 우리 모두를 새성전 건축의 사명에 불러 주시고 함께 이 일을 이루어 가도록 세워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바라옵기는 모두가 이 사명과 부르심에 응답할 수 있게 하옵소서.

한 사람의 낙오자도 없게 하시고, 유대

민족이 포로에서 돌아와 제 2성전을 지을 때, 여호와께서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마음과 남은 모든 백성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매 그들이 와서 만군의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의 전공사를 하였던 것처럼(학1:14), 우리 모두의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그 공사를 함께 시작하고 함께 완성해 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을 믿고 의지하며 시작하였습니다. 이 놀랍고 위대한 일을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을 위해 감당하게 하옵소서. 우리 모두가 그 사명과 부르심에 끝까지 응답하며 성전을 완공해 가도록 그 길을 인도하여 주옵시고, 동행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주님 되시고,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 기도보다 앞서가지 않게 하소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렘33:3)

우리가 기도할 때에 그 귀를 기울이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 새 성전을 건축함에 있어 우리가 기도보다 앞서가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진실한 기도와 끊임없는 기도로 우리의 성전이 하루하루 세워져 가게 됨을 보게 하옵소서. 기도를 통하여 사탄의 방해가 막아지게 하시고, 기도를 통하여 우리의 마음이 하나 되게 하시고, 기도를 통하여 불가능한 일들이 가능하게 됨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기도에는 능력이 있음을 믿게 하옵소서. 기도는 우리의 소원이 응답되게 하는 도구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가는 순종이 됨을 믿게 하소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게 하시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게 하시고, 기도하면서 그 말씀에 순종하며 행동하게 하소서.

물질의 늘어남과 채워짐이 우리의 자랑이고 힘이 아니라, 기도의 사람이 늘어나고, 기도의 함성이 끊어지지 않음이



우리의 자랑이고 힘이 되게 하소서.

어린아이에서 노년에 이르기까지 그 모든 능력의 열쇠인 기도를 가지고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서있게 하옵소서.

우리는 모든 모임에 성전건축을 위해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로 하였습니다. 속회, 선교회, 부서, 기관 그리고 개인의 생활 속에서 성전건축을 위해 모두가 기도의 제단을 쌓기로 했습니다.

초대교회 성령충만 받은 120명의 성도들의 상징적인 숫자와 솔로몬의 일천번제처럼 1,000시간의 기도의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기로 작정하여 우리 신앙의 헌신을 약속하며 120,000 시간 이상을 매년 하나님께 기도의 제단으로 쌓아가고자 하오니 그 이상을 채울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와 함께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주님 되시고,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게 하소서...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학2:9)

1936년에 우리 교회를 이 땅에 세워 주시고, 2번의 성전 건축과 1번의 리모델링까지 모든 상황과 여건을 허락하시고 인도하여 주셨던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80여년을 지나오는 동안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국외에 필리핀 봉아봉교회(1992), 중국 부흥교회(1996), 스리랑카 디버르가마교회(1999), 방글라데시 로그랏빨교회(2007), 남아프리카 드림유치원(2012), 미얀마 야다나봉교회

(2013)를 건축하게 하시고, 국내에 광염교회(1972), 서초동교회(1979), 우량교회(1981), 의왕중앙교회(1981), 인향교회(1982), 열린문교회(1986), 고향교회(1990), 청주새로운교회(2012), 화목한교회(2012)를 개척하여 세우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교회가 하나님의 세우신 목적과 사명을 감당하도록 오늘까지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저희는 이제 새성전을 건축하며 우리의  
건축비를 절약하고 모아 새성전 건축과  
더불어 국내에 또 하나의 교회를 같은  
시기에 개척하고 건축하고자 합니다.  
더불어 북한, 중국 등 해외선교지로 더  
많은 선교의 지평을 넓혀가며 주님이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신 목적과 사명을  
충실하게 감당해 나가고자 합니다.  
이전에도 함께 하셔서 주의 영광을 드  
러내게 하셨던 것처럼 앞으로 세워지는  
교회와 선교의 역사를 통해 이전 영광  
보다 더 큰 영광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  
소서.

주변에 작은 교회들과 어려운 목회자들  
과 함께 나누며 선교하게 하시고, 지금  
도 해외에서 선교의 불모지에 복음의  
씨앗을 뿌리기 위해 목숨 걸고 선교하  
시는 선교사님들을 후원하고 지원하며  
함께 복음의 그물을 던지는 교회가 되  
게 하옵소서. 우리를 통해 새로운 선교  
의 역사를 써 내려 가게 하시고, 하나님  
의 나라를 확장해 나가는 도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새성전 건축을 하며 새로운교회  
(The **NEW** Church

1. **N**ext-다음세대를 키워가며,
2. **E**vangelical-복음주의에 굳게 서서,

3. **W**orld-세계를 품고 땅끝까지 나아가  
는)에 대한 주님의 꿈(마24:14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  
리라”)을 품게 하여 주시고, 그 꿈을 이  
루기 위하여 우리 교회가 세가지 목표  
(3**N**EW '**S**-CHURCH')

1. 성도의 **영성회복**을 통하여 '**성령이  
거하시는 성도가 있는 교회**-'New Spirit  
Church'
2. **2KL2D사역**을 통하여 '**평신도를 깨우  
는 교회**-'New System Church'
3. **새성전 건물**을 통하여 '**공간이 사역이  
되는 교회**-'New Sanctuary Church') 를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주님 되시고, 교회의 머리가 되  
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  
니다. 아멘.





## 모든 과정과 결과를 인도하소서...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계22:13)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우리에게 새성전 건축을 시작하게 하셨  
으니 이 성전의 건축이 마치는 그 날 까  
지 모든 과정과 결과를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 주옵소서.

성전을 건축하기 위하여 세워주신 모든  
사람들에게 충성된 일꾼의 직무를 감당  
하게 힘을 주시고, 필요한 사람들을 불  
려주시고, 보내주셔서 협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동안도 우리에게 믿음으로 일하는 기  
업 ‘다솔CM’과 ‘야긴’설계회사를 동역  
자로 보내주셔서 함께 일하도록 하셨을  
을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성전건축을 할 수 있는 시공사도 기도  
하며 잘 선정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테리어, 음향, 영상, 성구를 결정하는  
데에 있어서도 믿음의 회사들을 잘 결  
정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14 | 새성전 건축을 위한 기도문



교회가 위치한 3구역, 9구역 조합과도  
좋은 협의가 끝까지 오고 갈 수 있도록  
함께 하여 주시고, 건축과 관계된 모든  
과정들을 진행함에 있어서 동작구청,

서울시의 관계자들과도 합리적이고 협조적인 도움을 구하고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모든 길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건축을 준비하며 지나 온 시간들이 참 길었습니다. 그러나 때마다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경험하며 감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제 건축을 진행함에 있어서 기공에서 준공까지 안전사고 없도록 눈동자와 같이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함께 협력하는 모든 업체와 사람들이 더 성장하고 더 발전할 수 있도록 축복의 통로들을 열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주를 위해 장막을 구할 때에도 어려움이 없도록 꼭 필요

한 안식처들을 구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연로하신 어르신들 새성전에서 함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건강을 지켜 주시고, 하나님의 세심한 보호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건축의 모든 재정을 채워주시고, 모든 성도들이 기쁨으로 자원하여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마음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건축을 위해 기도하며 헌신하는 담임목사님과 건축위원회 장로님들 그리고 협력하기 위해 세워주신 모든 동역자들의 영과 육이 강건하도록 날마다 새 힘을 공급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주님 되시고,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 새성전 건축을 위한 기도문 점검표

\_\_\_\_\_ 지역 / 직분 \_\_\_\_\_ 성명 \_\_\_\_\_

월 일	월 일	월 일	월 일	월 일
시간 분	시간 분	시간 분	시간 분	시간 분

월 일	월 일	월 일	월 일	월 일
시간 분	시간 분	시간 분	시간 분	시간 분

월 일	월 일	월 일	월 일	월 일
시간 분	시간 분	시간 분	시간 분	시간 분

월 일	월 일	월 일	월 일	월 일
시간 분	시간 분	시간 분	시간 분	시간 분

월 일	월 일	월 일	월 일	월 일
시간 분	시간 분	시간 분	시간 분	시간 분

월 일	월 일	월 일	월 일	월 일
시간 분	시간 분	시간 분	시간 분	시간 분

월 일	월 일	월 일	월 일	월 일
시간 분	시간 분	시간 분	시간 분	시간 분

월 일	월 일	월 일	월 일	월 일
시간 분	시간 분	시간 분	시간 분	시간 분

월 일	월 일	월 일	월 일	월 일
시간 분	시간 분	시간 분	시간 분	시간 분

월 일	월 일	월 일	월 일	월 일
시간 분	시간 분	시간 분	시간 분	시간 분

월 일	월 일	월 일	월 일	월 일
시간 분	시간 분	시간 분	시간 분	시간 분

월 일	월 일	월 일	월 일	월 일
시간 분	시간 분	시간 분	시간 분	시간 분

월 일	월 일	월 일	월 일	월 일
시간 분	시간 분	시간 분	시간 분	시간 분

월 일	월 일	월 일	월 일	월 일
시간 분	시간 분	시간 분	시간 분	시간 분

월 일	월 일	월 일	월 일	월 일
시간 분	시간 분	시간 분	시간 분	시간 분

월 일	월 일	월 일	월 일	월 일
시간 분	시간 분	시간 분	시간 분	시간 분

월 일	월 일	월 일	월 일	월 일
시간 분	시간 분	시간 분	시간 분	시간 분

월 일	월 일	월 일	월 일	월 일
시간 분	시간 분	시간 분	시간 분	시간 분

# MEMO







“또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이르되  
너는 강하고 담대하게 이 일을 행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여호와와 성전 공사의 모든 일을 마치기까지  
여호와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사  
네게서 떠나지 아니하시고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리라”

(역대상 28:20)

HEUKSUKDONG FIRST  
METHODIST CHURCH

## A photograph of the exterior of Heuksukdong First Methodist Church. The building is a modern, multi-story structure with a light-colored, possibly metallic or concrete, facade. A large, white cross is mounted on the roof. The entrance features a wide set of stairs leading up to a glass door, flanked by a metal railing. The sky is clear and blue. The text "HEUKSUKDONG FIRST METHODIST CHURCH" is overlaid in the top left corner.

06986 서울 동작구 서달로 10나길 21 / 교회: 02-817-2541~2 / 팩스 : 02-817-2543